

4) 상례

사람이 마지막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상례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 그 절차와 형식은 오늘날도 고풍 그대로 있어 어느 지역이나 거의 비슷하다.

자손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부모가 운명을 하면 속광(屬纊)을 하고 곡을 하며 수시(收屍)를 한다. 밖에서는 떠나는 영혼을 부르는 고복(梟復)을 한다. 마당에서 지붕을 향하여 망인의 저고리를 들고 관직과 성명을 세 번 부르거나 그냥 세 번 '복'만 외치고 지붕에 던져 두었다가 후에 내려다가 시체를 덮는다. 고복에 이어 사갓밥을 차리는데 명석 위에도 밥 세 그릇, 돈, 짚신 세 켤레를 올려놓는다. 이때 상인들은 재배하고 곡을 한다. 유족들은 여자일 경우에는 머리를 풀고, 부상일 때는 왼쪽 소매를 벗고 모상일 때는 우측 소매를 벗는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소렴을 하는데 송판 대신 짚이나 대나무를 잘 모양으로 엮어 시체를 받치고 머리를 높게 괴고 일곱 군데를 가볍게 묶는다. 이것을 '관뜨기'라고 한다. 그 다음 흠이불을 덮고 병풍을 친다. 병풍 앞에는 시사전(始死奠)이라는 작은 상을 차려놓는다. 일가친척 중에서 여러 가지 상사를 맡아보는 호상을 정하고 사서와 사화를 선정하여 발상 준비를 하며 부고를 보낸다.

사망한 다음날은 시체를 쭉물과 향물로 씻고 수의를 입히는 습(襲)과 시체를 단단히 묶고 입관하는 염(殮)을 한다. 이때에 손톱, 발톱, 두 발을 모아서 조발낭에 넣어 관에 넣는다. 습이 끝나면 반함(飯含)이라 하여 망인이 저승까지 가면서 먹는 식량으로 쌀을 버드나무 손가락으로 세 번 입 속에다 쏟아 넣는다. 때로는 동전을 넣기도 한다. 그 다음 염을 하는데 시체를 세로 가로로 묶고 입관한다. 영위를 만들고 지방 또는 위패 영정 등을 안치하며 향로, 향합, 촛대 등을 차려놓은 뒤 예를 행한다. 삼배 소복에 굴전, 영대, 지팡이, 짚신 등을 갖추고 성복제를 올린다. 지팡이는 부상일 때 대작대기를, 모상일 때는 나무지팡이를 든다. 짚신도 상에 따라서 매듭수가 다르다.

장일은 3일장이 일반적이다. 출상 전날 저녁에는 빈 상여를 메고 상여놀이(밤달애)를 하고 온 마을사람들이 논다. 관이 방을 나올 때는 방문 위에 바가지를 놓아두고 관으로 깨뜨리고 나와 발인제를 올린다. 만장, 명정, 영거, 상여, 상여 앞에는 공포, 상여소리꾼, 옆에는 불삽, 운삽 등이 진설된다. 도중에 노제를 지내며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묘자리에서는 치장(治葬), 천구(遷柩), 반곡(反哭), 산제의 의례가 계속되고 망자가 땅에 묻히면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장례 후 3개월이 지나면 곡을 그치고 사후 1주기는 소상이라 하고 2주기를 대상이라 하여 조객을 맞이하며 탈상을 한다. 모상이면 1주기로 탈상한다. 30, 40년 전에는 아기장인 용구장과 돌담물 그리고 지상장(地上葬)인 초분(덕밭, 초빈, 빙수, 구토릉)이 있었다. 지면에 돌자갈을 깔고 조지계(괘목)를 놓고 그 위에 관을 놓는다. 관 위에는 솔가지를 엮고 서까래로 지붕을 만들며 용마루를 틀어 이엉을 두른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솔가지로 묶는다. 3년 후에 뼈를 씻는 씻골을 하여 명당에 묻는다.